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지울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이 있다. 잊으려고 해도, 컴팩지처럼 트라우마로 남은 추억은 때론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청춘을 불사르며 화업에 전념하던 20대 후반에 만난 차00 형이었다. 30대 중반으로 키도 훤히하고 나를 빠질 것이 없었다. 게다가 그 어렵다는 외무고시 1차에 2번이나 당당하게 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한계는 거기까지였다. 2차 시험과목 중 가장 어려운 외국어는 형을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그 형과 내가 만날 수 있었던지도 모른다. 화습도서관 1층 대학원 열람실에는 많은 스테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어 시험과목을 선택한 형은 최선을 다해 열람이었던 기억이 뚜렷하다. 내가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공부한 것에 반하여 6개월 만에 거의 마스터에 이르는 경지를 보여주었다.

발음도 좋고 독해 능력도 작문도 수준급이었다. 그런데도 2차 시험을 보면 만점을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어느 날인가,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비가 내렸던 날인 것은 분명하다. 우산이 없던 나는 비를 피하려고 서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책도 볼 겸, 시간도 때를 겸, 비도 피할 겸, 이런 지면 이유로 서점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이 책 저 책을 섭렵했다. 다행히 중고서점이어서 사장님은 별말씀 없이 책을 읽는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박여범
음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 형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세상을 씹어 먹음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 부담스러운 얼굴에 그늘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거 뭐야 하는 눈웃음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야야, 박벌 후배, 니, 여기서 뭐한 다냐? 이 선배가 괴로워 죽었는데, 서점에서 책이나 보고 있냐? 도서관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모르냐 사랑스러운 후배야."

"왜 그래, 형, 형도 내가 책 좋아하는 거 잘 알면서, 왜 그래, 니까, 형?"

"나, 이번에도 2차에서 떨어졌다. 외무고시, 오늘 발표했어. 이름이 없더라고 아무런 생각해도 제2외국어 때 문인 것 같아. 아, 그놈의 일본어 만 점이었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미처 몰랐어. 과목을 바꿔 보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너와 상의하려고 찾았다. 왜?"

"그래요, 미안해요, 형. 그러면 무슨 과목으로 볼까요? 네 생각은 무엇이 쉬울 것 같냐. 내는 독어가 쉽더라고."

"아니, 뭐 말장난이야, 형, 니, 들었다. 와, 독어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야, 말해 봐, 울 사이에 뭘 숨기고 그래요?"

"아, 그래, 형, 말을 안 한다 이거지. 아, 그럼, 내가 맞춰볼까? 100% 답이 맞을 거야. 난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거 형이 잘 알지. 맞춰볼까요, 형 그 그....."

"어쭙, 박벌이, 니, 농담이 많이 들었네. 그래, 어디 맞춰봐. 아냐, 뭘 잘못 얘기했어? 풀."

"....."

"그래, 니, 가만해서 내가는 자신 없지, 이번 달 응모 다 떨어져서 선배, 후배에게 밥 얻어먹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놈아, 와, 자신이 없냐?"

"풀, 만원 풀,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꼭 약속은 지킬게, 형, 그럼 말한다, 약속 지켜, 형, 다른 말 하면 남자 아님."

"....."

"맞지, 자신, 그 선배, 자신, 그 선배 좋아하는 거, 독어문학과, 긴 생머리, 역시, 내 눈을 속일 수가 없지. 귀신을 속이세요, 형, 아, 내가 자리 한 번 만들어 볼까? 형, 내가 그 누나 선배랑 좀 친분이 있는데, 싫으면....., 아냐, 형은 외무고시 2차 준비해야 하니, 연애하면 안 되는 것을 잠시 잊었네. 아, 그래, 답이 나왔네. 형이 2차에 떨어지는 이유를, 아, 내가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진실을 놓치고 있었냐니, 오호....."

"....."

조용한 중고서점에 적막이 흐른다. 그 광란 순간도 없다. 역시, 비가 원인인 것 같다. 책에 두었던 눈을 들어 보니 형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저곳 찾아보니 창가에 멍하니 서 있다. 나는 일어나 형에게 가까이 갔다.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 누나와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푹푹히 보았다. 순간 눈이 풀린 형을 보고 말았다. 형은 터벅 터벅 서점을 걸어 나왔다. 그리고 자신 누나와 남자의 뒤를 말없이 따라 걷는다. 게다가 비는 거세게 서점 창가를 때렸다.

"헐, 독살이고 일본어고 다 필요 없네. 2차 합격이 키는 자신이 누나가 쥐고 있네. 예구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독립 기념 축하 불꽃놀이 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독립 73주년을 축하하는 불꽃 쇼가 열려 시민들이 이를 감상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호기로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은 유대력으로 4월~5월 중순에 해당하며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바뀐다.

러시아 도쿄올림픽 유니폼 "나라 이름 없어"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운동선수들이 국가의 상징이 표시되지 않은 올림픽 선수단 유니폼을 입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프초중재재판소(CAS)가 러시아의 도핑 샘플 조작과 관련해 2년간 국제 대회 참가를 제한하면서 국가명, 국기, 국가 등의 사용이 금지돼 도핑과 무관한 러시아 선수들은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러시아를 상징하는 그 어떤 표시도 없이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다.

사설

통일문화교육이 절실하다

통일교육은 시대별로 변화를 가져왔다. 6.25 전쟁을 치른 이후 통일교육은 안보교육이었다.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면서 통일·안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그 뒤 통일교육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통일교육은 '통일문화교육'으로 변모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대 형성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방법론은 보수와 진보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

그래서 통일 담론이 절실하다. 이는 통일문화교육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통일 인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협회, 그리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평화적 통일의 본질적 가치와 실현에 옮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통일문화교육은 각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형성시키는 일이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 속해 있는 범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스토리와 문화적 환경, 지역의 관광 명소 등 지역의 특수성과 통일 담론을 접목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운동은 강의, 학술회의, 논문 발표, 민간단체 활동 등 다방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통일문화교육은 단순히 통일 편익이나 안보 차원의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지식 전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문화교육이 통일사회의 통합을 실현시키는 사회적 중추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때이다.

전북 출신 정운천 의원에 거는 기대

전북 출신 정운천 국회의원에 전북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는 32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전주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지역구 임기를 마치고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 임성 후 1년여 간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동서화합을 위해 동행 국회의원을 운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조금씩 바뀌기를 희망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호남 동행 의원단을 발족하고 동행 지역구를 찾았다.

현안을 정리하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실제 전북 지역 국민의힘 동행 의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북도 예산 확보에 역할을 했다. 지역을 방관해 지자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안 사업을 챙겼다.

정 의원은 호남에 대해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를 당헌당규에 명시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 안에 25%를 우선 추천하

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호남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정당 득표율은 4.3%에 불과했다.

지역구 후보도 전체 28개 지역 중 12개밖에 내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호남인들의 지지를 더욱 받지 못했다. 전국 정당화 그리고 향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능력 있는 호남 인재의 육성은 중대한 과제였다.

그는 항상 생활통 정치들 통해 전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정 의원은 5년 연속 예정 위원을 하면서 혼자 고군분투했다. 전북은 인구 절벽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 속에서 사실상 비껴 서 있다.

전북에는 현재 새만금 개발, 제3금융 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현안 사업들이 많다.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긴밀히 공조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일당 독주의 병폐는 사라져야 한다. 정운천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